

스리랑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66천 Km ²	G D P	420억 달러(2009년)
인구	21.3백만 명(2009년)	1 인 당 GDP	1,972달러(2009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Sri Lanka Rupee(SLR)
대외정책	독자적 실리노선	환율(달러당)	114.95(2009년)

- 인도 남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7분의 2 수준이며, 인구는 2009년 기준으로 약 2,132만 명임. 내수시장과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빈곤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02년 이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연 6~7%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해 왔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3.5%에 그쳤음.
- 2009년 5월 25년 이상 계속된 정부와 타밀반군의 내전이 종식되었으나, 여전히 싱할리족과 타밀족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이른 상황임.
- 마힌다 라자파크세(Mahinda Rajapaksa) 대통령이 2010년 1월 대선에서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여당연합인 통일인민자유연합(UPFA)이 동년 4월 총선에서 승리를 거둠에 따라, 정치기반이 굳건해졌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제성장률	7.7	6.8	6.0	3.5	6.7
재정수지 / GDP	-7.0	-6.9	-7.0	-9.7	-8.3
소비자물가상승률	10.0	15.8	22.6	3.4	6.9

자료: IMF, EIU.

□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경제성장세 둔화

- 스리랑카는 서비스부문의 성장과 수출 호조로 2002년 이후 연 6~7%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왔음. 특히 2006년에는 서비스부문과 건설 부문의 호조로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7%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2007년에도 6.8%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하지만 휴전협정 종료 이후 격화된 정부와 타밀반군의 무력충돌로 투자심리 악화,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제조업과 농업 부문의 부진 등으로 2008년에는 다소 둔화된 6.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정부와 타밀반군의 내전이 종식됨에 따라 부진했던 농업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고 산업생산증가율도 크게 둔화되어 경제성장률이 3.5%로 크게 하락하였음.
-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가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 종전 후 인프라 구축에 따른 투자 증가, 통신, 관광산업 등 서비스부문의 성장 및 수출경기 회복으로 2010년에는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방부문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재정적자

- 정부의 조세수입 증대, 정부부채 관리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문의 지출이 확대되고 정부와 타밀반군 간 교전 격화 등으로 악화된 민간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7%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 2009년에는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급과 자본지출 증가로 정부지출이 전년 대비 20.2% 증가한 반면, 경기 둔화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조세수입이 둔화되면서 정부수입은 7.2% 증가하는데 그쳐 GDP 대비 9.7%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음.
- 2009년 개시한 인프라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자본지출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내전 종식으로 국방부문의 지출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회복으로 인한 조세수입 증가로 2010년에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8%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는 하향 안정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4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급격한 상승세로 반전되었음.
- 정부지출 확대, 국제유가 급등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7년 15.8%, 2008년 22.6%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3.4%로 하락하였음.
- 농업생산 증가로 인한 식료품 가격 하락 지속, 인프라 개발로 인한 전력 공급 증가, 스리랑카 루피화 강세 등으로 2010년에는 6.9%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인플레이 우려가 감소됨에 따라 스리랑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ri Lanka: CBSL)은 경제성장세 지지를 위해 2009년 2월부터 11월까지 기준금리인 역리포 금리(reverse repo rate)를 총 375bp 인하하였으며, 2010년 6월까지 7개월간 연속 동결하여 9.75%로 유지하고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타밀반군과의 교전으로 인한 국방부문의 지출 확대가 스리랑카 재정수지에 부담을 주어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가 제약을 받아 왔음.

□ 높은 대외의존도

- 스리랑카는 국토와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며, 특히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가 경제성장의 주요 관건임.

□ 협소한 내수시장 및 낮은 노동생산성

- 스리랑카는 인구 약 2,132만 명(2009년 기준)의 개도국으로서 인근 경쟁국들에 비해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내수시장 자체만을 겨냥한 투자가 어려운 것이 큰 약점임.
- 스리랑카의 노동생산성은 중국, 베트남 등 섬유산업 경쟁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서남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임금은 높은 편임. 경직된 노동법으로 인해 종업원 해고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크며, 공휴일이 많고 고급기술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열악한 인프라

- 인프라는 스리랑카의 투자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중 전력문제가 특히 심각한 상황임. 비싼 전력요금 및 잦은 정전 등으로 도시 소재 기업의 약 75%가 자체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 전력공급의 50%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관광지로서 잠재력 풍부

- 스리랑카는 국토의 사면이 모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해안이어서 연중 내내 해변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고, 내륙지방에는 다양한 자연생태공원과 고대유적지가 보존되어 있어 종합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함.
- 지난 몇 년간 쓰나미 및 내전의 영향으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2009년 5월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내전이 종식됨에 따라 관광객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0년 5월에는 스리랑카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동기 대비 약 48% 증가하였음.
- 급증하는 관광객 수에 비해 관광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관광상품 개발, 신규 호텔 건립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관광산업의 성장이 추후 스리랑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스리랑카 관광개발청(Tourism Development Authority: TDA)은 2016년까지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른 ICT 산업의 급속한 성장

- 스리랑카 정부는 기존의 농업중심 국가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인 ICT 산업(유무선통신, 인터넷, 전자정부 등)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지식과 부를 재분배하여 빈곤 축소와 생활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음.
- 특히 통신산업은 발빠른 규제완화와 시장개발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스리랑카의 GDP 성장에 20%정도 기여하였음.
-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국가 중 전화보급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동통신 부문의 발전 속도가 빠르며, 연간 50%대의 휴대폰 보급률 증가를 통해 사용인구가 2001년 67만 명에서 2009년 6월 1,17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서남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중앙 및 지방정부간 통신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인 Lanka Government Network(LGN)는 세계은행의 스리랑카 전자정부 구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삼성네트웍스가 시행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정책 지속

- 스리랑카는 시장개방과 무역 증진을 위해 1998년에는 인도와 2002년에는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는 한편,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의 회원국으로서 2006년 1월 서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에 서명하면서 회원국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음.
- 스리랑카는 100%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이익배당의 자유 보장, 자유로운 주식 양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2010년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도 순위에서 스리랑카는 120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인 인도(124위), 방글라데시(137위), 베트남(144위) 보다도 앞선 순위임.
-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자유도와 지역경제통합의 진전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가 결합된다면 보다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 상업은행의 외국인투자자 예금 유치 허용

- 스리랑카 정부는 2008년 6월 시중 상업은행들이 외국인투자자의 예금을 유치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이러한 정책을 통해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외국인투자자 예금을 활용하여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재정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관세 개편

- 스리랑카는 제조업 발달이 미흡해 대부분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부가 조세수입 확대를 위해 수입제품에 총 9가지의 세금을 부과하여 수입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었음.
- 2010년 들어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적자가 개선됨에 따라 정부는 2010년 6월 수입관세에 대한 개편을 실시하여, 기존 9가지의 세금을 하나의 특별상품세로 통합하는 한편, 원자재에 대한 수입 부가세 폐지, 원자재, 기계류, 자동차,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상 수 지	-1,599	-1,498	-3,876	-1,630	-1,954
경 상 수 지 / GDP	-5.7	-4.6	-9.5	-3.9	-4.0
상 품 수 지	-2,345	-2,527	-4,470	-2,657	-3,622
수 출	6,883	7,640	8,137	6,869	7,217
수 입	9,228	10,167	12,607	9,527	10,839
외 환 보 유 액	2,762	3,433	2,469	4,616	4,558 ^{주)}
총 외 채 잔 액	14,197	16,659	17,584	18,757	20,554
총외채잔액/GDP	50.2	51.5	44.4	44.5	48.9
D. S. R.	8.6	6.9	9.3	10.8	11.3

주: 2010년 3월말 수치임.

자료: IFS, EIU

□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 전망

- 스리랑카는 석유와 주요 식료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인프라 투자 관련 수입이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해왔음. 수출은 섬유 및 의류, 차(tea), 고무 관련제품 등이 주도하고 있음.
- 2009년에는 미국과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

진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세와 더불어 인프라 투자 및 경제활동 침체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폭은 전년 대비 축소된 약 2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인프라 투자 증가 및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EU가 스리랑카 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수출액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적자폭도 확대 전망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모두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이전수지는 해외근로자 송금에 힘입어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 17억 달러에서 2009년 2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08년에는 이전수지의 지속적인 흑자에도 불구하고 국가 치안상황 악화로 인한 관광산업의 부진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9.5%로 크게 확대되었음.
- 해외근로자 송금 지속, IMF의 원조자금 유입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은 2009년 GDP의 3.9%로 축소되었음. 2010년에는 관광산업 등 서비스부문의 성장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내전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외채 증가

- 견조한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 수준은 2002년 56.9%에서 2008년 44.4%로 꾸준히 낮아졌으나, 2009년 막바지에 이른 내전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외채규모가 18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총외채 비율도 44.5%로 소폭 상승하였음.
-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도 2009년 149.6%로 상승하였으며, D.S.R.도 10.8%로 상승하였음.

□ IMF, 26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 합의

- 외환보유액은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힘입어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2007년 말 34억 달러에서 2009년 6월말 17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음.

- 수입대금 결제 및 외채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2009년 2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약 1.3개월 수준) 스리랑카 정부는 2009년 3월부터 IMF 차관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음.
- 그 결과 2009년 7월 IMF는 스리랑카 경제 재건을 위해 26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 2009년 6월말까지 스리랑카는 총 16억 달러의 IMF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5.8개월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성공

- 한편 스리랑카는 2009년 10월 내전 이후 처음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5억 달러를 조달하였는데(5년 만기, 발행금리 7.4%), 전후 재건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채권 발행에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앞으로 스리랑카의 대외신인도 개선이 기대되고 있음.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라자파크세 대통령 재선 성공에 따른 정치기반 확립

- 2005년 1월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스리랑카의 정치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여당 연합인 통일인민자유연합(United People's Freedom Alliance: UPFA)의 제 1당인 스리랑카자유당(Sri Lanka Freedom Party: SLFP) 소속 마힌다 라자파크세(Mahinda Rajapakse) 대통령이 타밀반군을 물리친 영웅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
- 2010년 1월 26일 타밀반군과의 내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대선에서 라자파크세 대통령이 약 58%의 득표율로 강력한 경쟁후보였던 사라스 폰세카(Sarath Fonseka) 전 합참의장을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였음.
 - 이 과정에서 폰세카를 지지하는 군부의 쿠데타를 우려한 라자파크세 대통령이 대선 개표 당시 군 병력을 동원해 폰세카 후보를 사실상 감금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폰세카 후보를 긴급 체포하기도 하여 야당 후보 탄압 및 부정시비 논란이 두 번째 임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2010년 총선에서 여당연합인 UPFA의 압도적 승리

- UPFA는 최근 지방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한 이후 2010년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도 승리하였음. 한편 라자파크세 대통령은 대통령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현 헌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이번 총선에서 UPFA가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기를 기대했으나 실패하였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정부와 타밀반군간 내전 종식

- 2008년 1월 타밀반군(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과의 휴전 협정 폐기 이후 정부가 타밀반군에 대하여 대대적인 공습을 벌여 타밀 반군이 패배함에 따라, 25년 이상 지속된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내전이 2009년 5월 종식되었음.
- 내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차별한 진압으로 내전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민간인 피해(사망 7만 명 이상 추정)에 대해 미국, EU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음.
- 세계 원조기관들이 오랜 내전으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의 경제개혁과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가 민간구호 단체의 접근을 일부 통제하고 있어 민간인 피해 사실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 비상사태 일부 완화

- 라자파크세 대통령의 재선 성공 및 여당연합의 총선 승리로 정권 기반이 굳건해지자, 정부는 내전 기간에 타밀반군 및 반군 지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선포했던 국가 비상사태를 2010년 5월 일부 완화하였음.
- 그러나 싱할리족과 타밀족의 갈등이 아직 해소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반군의 테러공격 가능성이 남아 있어 비상사태 규정을 전면 철회하지는 않았음.

3. 국제관계

□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의 원조 확대

- 스리랑카는 인도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타밀반군 및 해양경계 확정 등의 문제로 한때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1987년 양국간 평화협정 체결, 1990년 인도 평화유지군 철수, 1998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점차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 특히 인도 정부가 스리랑카의 전후 복구에 적극 참여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6월 라자파크세 대통령이 내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인도를 공식 방문하여 스리랑카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양국간 전기 시설망 연결과 범죄 문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또한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의 북동쪽 지방 중심의 인프라 개발 투자에 10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합작 투자의 형태로 난민들을 위한 5만 호 주택 건설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러한 인도 정부의 원조 확대는 스리랑카에 대해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몇 년간 중국은 5차례에 걸쳐 1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하면서 미국 원조 중단 이후 스리랑카의 최대 원조 공여국이 되었음.

□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서방국가의 원조 축소 움직임

- 스리랑카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를 유치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EU 등과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09년 라자파크세 정권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서방국가들의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입장을 취하였음.
- 이에 따라 서방국가들은 타밀반군과의 내전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EU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010년 8월 15일부터 스리랑카 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 한편 2009년 8월 S&P는 IMF의 대기성 차관 도입 합의가 스리랑카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이나 대외신인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또한 2009년 10월 Fitch도 마찬가지로 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7년 11월 14일(북한과는 1970년 6월 25일)
- 주요협정: 항공협정(1978), 문화협력협정(1978), 투자보장협정(1980), 무역협정(1984), 이중과세방지협약(1984), 과학기술협력협정(1994)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스리랑카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스리랑카	2008	2009	2010.1-6	주요품목
수 출	627	170	97	편직물, 섬유직물, 철강판
수 입	59	74	29	금속광물, 의류, 식물성물질
합 계	686	244	126	

자료: 한국무역협회

- 스리랑카와의 교역규모는 2007년 2억 3,300만 달러, 2008년 6억 8,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대 스리랑카 수출이 전년대비 급격히 감소하면서(전년 대비 72.9% 감소) 교역규모는 2억 4,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우리기업의 대 스리랑카 해외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2010년 3월말 기준 제조업을 중심으로 148건, 약 1억 7,134만 달러(투자누계 기준)를 기록하였음.

- 스리랑카는 우리나라 유상 원조사업의 중점 협력대상국가 중 하나로, 2009년 말 기준 총 18건의 사업에 약 2,148억 원의 EDCF 자금이 집행되어 베트남,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경제협력기금 집행이 많은 나라임.

VI. 종합 의견

- 스리랑카는 2002년 이후 서비스부문의 성장 및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왔으나, 2009년에는 내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크게 낮아진 3.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2010년에는 민간소비 증가, 인프라 투자 증가, 서비스부문의 성장 및 수출경기 회복으로 약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지출 확대, 국제유가 급등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8년 22.6%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3.4%까지 하락하였음. 막대한 국방부문 지출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급과 자본지출 증가로 재정적자가 GDP의 9.7%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 석유와 주요 식료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인프라 투자 관련 수입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해왔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모두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이전수지는 해외근로자 송금에 힘입어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2009년 5월 25년 이상 이어져 온 정부와 타밀반군의 내전이 종식되었으나, 싱할리족과 타밀족의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반군의 테러공격 가능성이 남아 있어 아직 스리랑카의 사회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이른 상황임. 한편 2010년 라자파크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총선에서도 여당이 압승하면서 정권 기반이 굳건해졌음.
- 2009년에는 내전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외채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로서 단기적으로는 외채상환 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전문연구원 이 세 린 (☎02-3779-5655)

E-mail: srlee@koreaexim.go.kr